

주께서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전-후서-

다니엘 12:1-4, 데살로니가전서 5:1-6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참 복음과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후대를 살리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후대가 불가능에 도전하고, 세상을 개혁하며,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예배기도와 집중기도, 깊은 기도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미래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듣고 끝까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도록 영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 데살로니가전-후서의 배경

오늘은 데살로니가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서론적으로, 먼저 데살로니가지역과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해 살펴보아야 되겠다.

(1)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가장 큰 성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대왕이 정복한 지역이다. 오늘날의 그리스 쪽 지역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카이아로 되어 있었다. 마케도니아는 원래는 그리스 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아반인 취급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여동생의 이름이다. 필립 왕의 이름에서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왔다. 주전 146년 경에 이 지역은 다시 로마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된다.

(2) 데살로니가교회와 데살로니가전-후서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이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는데, 편지는 데살로니가교회에 제일 먼저 쓰게 된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인데, 신약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장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 신앙에 너무 깊이 빠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이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어야 되겠다 하고 쓴 것이 데살로니가후서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핑계를 대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 한다, 공부 안 된다 하고 핑계를 대지 않나? 핑계, 이유를 대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프다, 힘들다, 돈 없다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강림한다 하는 핑계로 게으른 것이다.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돌보고 청소도 안 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일수록 생명 건 헌신을 해야 한다. 복음일수록

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복음일수록 더 성실해야 한다. 복음일수록 사랑이 넘쳐야 한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 강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데살로니가교회는 초창기의 편지라서 그런지, 꾸지람이 없고 칭찬만 가득하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날이 내일이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겠는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이 나쁜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이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다. 노아 시대 때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만 열심히 했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일이었다.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다. 멸망받는 길이다. 사람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 모르고 정지만 열심히 한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고민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육신의 질병도 해결된다. 부활체가 될 것 아닌가? 주님 오시면 헌당도 필요 없다. (웃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주일학교 봉사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닌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1. 성경에 나타난 재림과 휴가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다니엘은 2700년 전에 마지막에 대환난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처음 쓴 책이라고 하지 않았나? 정말 새가족이 읽어야 할 성경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후서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후서다. 이것이 이해되면 끝 아닌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이다.

(1)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살전4:16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 호령이 나면서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부른다. 나만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대환난이 요한계시록에는 21번 나온다. 한 번만 겪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21번이 나온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회는 그 환난을 겪지 않고 불러 올라간다. 우리는 신부다. 땅에는 환난이 있는데, 교회는 결혼식을 치른다.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난이 임하는데, 교회는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 우리는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 살전4:16-17을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체로 바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이다. 20살에 죽었으면 20살로 살아난다. 50세로 죽었으면 50세로 살아난다. 그러나 부활체는 그렇지 않다.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천국에 갈 수 있는 몸,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억만 배의 즐거움이 온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2)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과 재림

마2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세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마24:5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24:6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

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24:7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24:9에는,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7년의 환난 때 일어날 일이다. 지금 기독교인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다.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유대인들을 건지시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7년의 환난 때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견딜 필요도 없다. 이미 천국에 휴거되어 올라갔기 때문이다. 언제 이 때가 오는가? 마24:14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했다. 그 역할을 우리 램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다.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은 좀 고통당하다가 올라오는 것이다. 어머머마한 축복이다. 마24:21을 보면,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이 때는 유대인의 때이고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래서 처음에 부름을 받고 빨리 올라가야 한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아니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미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다. 마24:37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럴 것이라고 했다. 홍수가 일어나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을 계속 하다가 물 때문에 멸망당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영원한 것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행1:11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3) 다니엘에 나타난 종말

이때 일어날 대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고,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다. 단12:1에,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단12:4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 하라’고 했다. 이해가 되는 때가 될 때까지 간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다. 마라나타, 그 날이 가까워졌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가 바로 이 때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가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천국의 이 소망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늘나라의 배경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지 않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한다.

2.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러면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하겠고,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그것을 바울은 살전 5:12-21에서 15개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여기에 관심이 있

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헌신도 할 수 있다. 그런 헌신을 이번에 세계렘프대회 때 우리 스태프들이 한 것이다. 등록팀들이 대회기간 동안 새벽 네 시 전에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 류목사님도 대회기간을 앞두고 두 시간밖에 못 잤다고 한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 불면증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웃음)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리면서 할 수 있다. ‘되리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1) 목회자와의 관계

살전5:12-13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울과 비교하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2) 인간관계

살전5:13-14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3) 성령인도, 성령충만을 받는 삶

살전5:16-20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인도를 받고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다.

(4) 거룩한 삶

결론적으로, 살전5:21-22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 : 복음 가진 우리가 올 인 해야 할 것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올 인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24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올 인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한다. 24시간 기도에 집중하고 올 인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란다. 24시간 공부와 사업에 집중하고 올 인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24시간 우리는 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해 올 인 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작은 행동도 다 상급으로, 축복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시간, 우리는 후대를 영육간에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올 인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24시간 집중하고 올 인 하다가, 영원한 상급을 어머머마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의 작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이 나타나실 그 때에 당당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